

김영하 연재소설 퀴즈쇼 Quiz Show [29]

한 번 탄력을 받은 빛나는 거침이 없었다. 오펜바는 빛나의 연설장이 되어버렸다. 나쁜 아니라 같은 테이블을 쓰는 옆 자리의 두 남녀도 귀를 종긋하고 빛나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줄을 아는지 모르는지 빛나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들지 마. 다 오펜바 위해서 하는 말이야. 오펜바는 정신 좀 차려야 돼. 요즘 오펜바 또래의 다른 남자들, 정말 열심히 산단 말이야. 새벽에 도서관 가서, 음, 밤까지 책 보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괴외도 하고, 뭐 알바도 하고 그러고도 시간을 짜내서 스테디해. 요즘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것만

건 한 번 잘못하면 갇다 버릴 수도 없고 반쯤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여자들이 숙고에 숙고를 하는 거야. 요즘 여자애들이 눈은 얼마나 높아. 브래드 피트, 장동건, 강동원, 앤트워스 밀러 같은 꽃미남들이 수두룩하잖아. 이제 남자들이 글로벌 경쟁시대야. 여학연수 갔다가 외국 남자들이 눈 맞은 애들이 어디 한둘이야? 솔직히 말해서 한국 남자들은 국제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 요리를 잘하길 하나 매너가 좋기를 하나? 분위기도 딱딱 못 맞추면서 자존심은 세고. 심지어 자기들이 무지하게 잘난 줄 알잖아. 못 말리는 나르시시스트들. 이게 다 한국 엄마들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여자들이 핸드백 살때 뭘 제일 고려하는지 알아?”



그림= 이우일

힘들면 다행이게? 남자들, 웬만해선 결혼도 못하잖아? 왜 못할까? 뭐, 오펜바 아마 생각해보는 적도 없겠지.”

“왜 못하는데?”

“오펜바. 여자들이 핸드백 살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뭘지 알아?”

“물라.”

내 대답에는 힘이 없었다. 나는 이미 정신적으로 녹다운 작전이었다.

“듣고 다닐 때 쪽팔리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게 첫 번째야. 기능? 품질? 디자인? 그런 건 다음 문제야. 그렇다고 꼭 브랜드를 들어야 한다는 건 아니야. 어쨌든 쓸 만한 백이 없으면 차라리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게 낫다는 거지. 남편도 똑같아. 백 사는 거랑 비슷하네 이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빛나는 관자놀이를 내 어깨에 가만히 대고 팔짱을 더욱 꼭 조였다. 빛나는 잘해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다정했지만 자기 심사가 뒤틀리면 제멋대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 나를 불러내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키고 아무 죄의식도 느끼질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잔소리를 해대곤 했었다. 이런 것을 고쳐라, 저런 것을 해라. 그 잔소리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그녀가 말한 대로 했다면 지금쯤 나는 꽤 쓸 만한 젊은이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철밥통에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임이나 공사 취업 준비를 하고 틈틈이 알바도 하면서 건실하게 살았을지도 몰랐다.



서울 통의동에 운영 김달진 미술연구소에서 '자료들의 숲'에 파묻혀 있는 미술 연구가 김달진씨.

미술연구가 김달진씨 자료 열람실 오픈... 수집자료 공개

미술 연구가 김달진(52)씨가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60평 규모의 미술 자료 열람실을 열었다. 박수근·이중섭·김환기 화백 등 한국 현대 미술 작가 6000여 명의 도록(圖錄)과 전시회 팸플릿, 해방 전후부터 최근까지 발간된 미술 잡지, 학회지, 미술 관련 단행본이 1.8~2m 높이 6단 책장 117개를 꽂 채운 공간이다. 1938년에 나온 고(故) 오지호·김주경 화백의 2인 화집, 1950년대에 나온 미술 잡지 '신미술' 등 희귀한 자료가 넘친다.

김씨는 미술계에서 '인간 114'로 불린다. 작가와 평론가의 전화번호는 물론, 누가 언제 어떤 전시에 참여했는지, 언론과 평단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에게 물으면 전부 10초 안에 답이 나온다. “이중섭 드로잉 전시회가 미도파화랑

에서 열린 게 언제죠?”라고 묻자 “1979년이요”라는 대답이 곧바로 돌아온다. “그럼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한 건요?” “2005년이죠.”

김씨의 이 같은 '내공'은 미술 전문 월간지의 사한 겸 수습기자로 입사한 1978년부터 30년째 꾸준히 미술 자료를 수집한 데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는 한때 '금요일의 사나이'라고도 불렸다. 매주 금요일 오후면, 검은 가방을 메고 인사동에 출몰해 화랑가를 돌며 가방이 불록해지도록 팸플릿, 도록, 포스터를 걷어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은 자료 때문에 살던 집에서 쫓겨날 뻔한 적도 있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진 직후 '건물 붕괴'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진 시절, 그는 단독주택 2층에 살았다. 집 주인은 그에게 “엄청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쪼개 있는

당신 책장 때문에 집이 무너질까 두려우니, 방을 빼든지 책을 빼든지 택일하라”고 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5t 화물차 1대분의 자료를 고향집 광에 옮겨다 놓았다.

김씨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가나아트센터 자료실에 차례로 근무한 뒤, 2001년 서울 평창동에 자기 이름을 딴 '김달진 미술연구소' (www.daljin.com)를 내고 그동안 모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21평짜리 반지하 빌라에 살면서도, 자료를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에는 매년 개인 돈 5000만원 이상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

김씨는 지난달 통의동으로 연구소를 옮기고, 그동안 모은 자료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다음달까지는 작가, 평론가, 언론인에게만 열람실을 개방하며, 5월부터 일반에 개방한다. (02)3217-6214~5

글·사진=김수혜 기자 goodluck@chosun.com

“한국 디자이너 지망생 ‘열린 사고’ 인상적”

세계적 디자인대 세인트 마틴 스쿨 스미스 학장, 공모전 심사차 방한

“한국 학생들이 원단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게,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상업적인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3~5년 뒤면 한국도 세계 패션 주류에 당당하게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디자인 대학인 센트럴 세인트 마틴(Central St. Martin) 스쿨의 앤 스미스(50·Smith·사진) 학장을 21일 만났다. 그녀가 방한한 목적은 의류 브랜드 코오롱에서 실시한 공모전을 심사하기 위해서다. 코오롱은 세인트 마틴 스쿨과 산학협력력을 맺고 있다. 세인트 마틴 스쿨은 미국의 파슨스(Parsons), FIT 패션 스쿨 등과 함께 디자이너 지망생에겐 꿈의 학교로 불리고 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를 주름잡는 유명 디자이너를 줄줄이 배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세인트 마틴 스쿨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 크리스찬 디올 수석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Galliano)나, 지방시의 알렉산더 맥퀸(McQueen), 클로에·구찌를 이끈 스텔라 맥카르티니(McCarteny) 등이 모두 이 학교 출신이다.

앤 스미스 학장은 한국 학생들의 특징을 ‘열린 사고(思考)’로 정의했다. “최근 수석 졸업한 스티브(본명 정형서)라는 학생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벨



가를 내렸습니니다.”

그녀는 한국의 패션 성장 잠재력에 주목했다. 특히 ‘한복’ (코리안 웨딩 드레스라고 표현했다)에서 세계 패션을 주도할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다. “디자인적인 면에서 섬세한 곡선이 인상적이고 서로 이어붙인 재단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깔도 무척이나 아름답고요. 비례도 아주 뛰어나죠. 세계시장에서도 시장성이 있을 겁니다.”

최보윤 기자 spica@chosun.com

동영상 chosun.com

盧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주선회 憲裁재판관 퇴임



2004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 때 주심을 맡았던 주선회(周善會·사진) 헌법재판관이 22일 퇴임식을 갖고 6년간 몸 담았던 헌법재판소를 떠났다. 주 재판관의 퇴임으로, 윤영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탄핵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모두 헌재를 떠나게 됐다. 주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에서 “우리 주변에는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라는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험난한 시련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견제세력’의 의미를 “한재 무용론(無用論)을 퍼면서 헌재를 공격하는 일부 정치권”이라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탄핵 사건 선고 뒤 건강이 악화돼 폐수술을 받았다. 주 재판관은 5월 말쯤 서울 서초동에 개인 사무실을 열 계획이다.

이길성 기자 atticus@chosun.com

한국 “꿀지 소녀” 케임브리지 대 장학생에 이어 하버드 대학원 장학생으로 입성. 온 나라가 들썩!

★인터넷 Daum 인기검색 순위 1위★

꿈이 없던 우리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해준 책

한국의 꿀지소녀 케임브리지 입성기 1.2

전국 160여 개 초·중·고교·학원 단체 주문 및 추천도서로 선정

이 책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
이 책은 우리 교육의 미래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기적은 선택에 달려있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좋은 책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초등학생들이 한시간에서 두시간 읽습니다. - shmo650717
하루포터 다들용으로 기적적인 작품입니다. - slm-pak-sa

집필 기간만 1년 2개월!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우리집에 놀러온 명의 괴짜 천재들

인간의 모든 삶의 영위는 결국 참되게 잘 살기 위한 궁극적인 것이다

이 책은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목표의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청소년들을 위한 바이블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추천 권장도서로 선정

기하학 바이블 4종 | 값 10,000원

사랑과 꿈을 주는 장편다리 전화 031) 957-3890~1